

고부시좌 지구촌 나눔 한마당 참가



5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광장과 무교동 거리 등에서 개최된 '지구촌 나눔 한마당2016'에 홋카이도 공연단 '고부시좌'가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지구촌 나눔 한마당에서는 세계 60여개국의 음식전과 해외자매도시 공연단 초청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 2010년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어 서울에서 홋카이도 공연단을 초청해 작년에 이어 하코다테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민속가무단 '고부시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부시좌는 홋카이도의 민요 '소란부시' 등을 연주해 많은 한국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DAY



올해는 홋카이도와 경상남도가 교류취의서를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교류를 맺은 지역을 소개하는 'DAY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경상남도도 교류취의서를 체결한 6월 7일을 기념해 6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상남도DAY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치를 소개하는 사진과 팸플릿 등을 전시하고 7일 점심시간에는 홋카이도청 1층 교류광장에서 경상남도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경상남도 출신자의 협력을 받아 한복 패션쇼를 펼쳐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방문



5월 19일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하여 쓰지 부지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도 관광을 PR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홋카이도에서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우호협력협정서를 체결하고 우호관계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제주도를 PR하고 제주도에서는 홋카이도를 PR해 서로의 매력을 전하면 양 지역의 왕래가 더욱 늘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충청남도 부지사 방문



충청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4월 25일 홋카이도청을 방문하고 26일부터 도베쓰초와 시모카와초를 방문했습니다.

허 부지사는 충청남도와 홋카이도는 농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홋카이도의 지역자원활용 등 농업활성화 방안을 배우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쓰지부지사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양 지역의 앞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7월 8일 삿포로한국교육원에서 문교류원의 장구만들기 강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재활용품을 사용한 미니장구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미니장구를 만든 후에는 세마치 장단을 익혀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세마치장단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즐거운 노래와 장단에 어깨가 들썩이는 강좌였습니다.



문교류원의 여행기 홋카이도 동쪽의 명소를 찾아서~!

구시로 습원



구시로 습원은 일본 최대의 습원으로 1980년 일본 최초 람사르조약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두루미 등 야생조류의 서식지로 겨울에 가면 두루미를 볼 수 있으며 여름에는 카누 등의 체험도 가능합니다.

습원을 보기 위한 여러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내다보면 구불구불한 구시로강이 보이고 광활한 구시로 습원이 펼쳐져 가슴이 탁 트입니다. 호소오카 전망대에서는 특히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바타야끼



구시로는 로바타야키라고 불리는 화로구이가 유명합니다.

구시로의 로바타야키를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니 화로가 놓여있고 여러 가게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인데 티켓을 사서 각 가게에서 주문합니다. 구시로는 신선한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각 가게에서는 게, 가리비, 소라, 오징어 등 신선한 해산물과 돼지고기, 닭고기 꼬치구이류 등 여러 종류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골라 그 자리에서 직접 구워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시베차초 시라루토로코 호수, 초노모리 숲



시라루토로코 호수는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내에 있는 호수로 물새가 많이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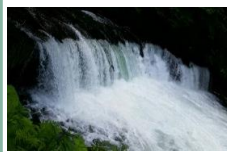
하는 곳입니다.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가야누마 지역에는 캠핑장과 온천 숙박 시설 등이 있으며 호수에 근접한 구릉지에는 초노모리(나비숲)라는 숲이 있습니다. 초노모리는 이름 그대로 여러 종류의 나비와 야생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초노모리에서 산책 후 뜨거운 가야누마 온천에 몸을 담그면 그야말로 상쾌한 아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쓰케반도 도도와라



노쓰케반도는 시베차초와 벳카이초에 속하는 가늘고 긴 반도입니다. 일본 최대의 사주로 이 일대에는 도도와라, 나라와라, 원생화원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 도도와라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길에 사슴 무리가 보였고 저 멀리서는 여우와 학이 놀고 있었습니다. 도도와라를 걷다보니 홋카이도의 꽃인 해당화가 군데군데 피어있습니다. 길을 쭉 걷다보니 해수에 침식된 분비나무의 황량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름답게 핀 작은꽃들과 시들어버린 분비나무의 어딘지 쓸쓸한 풍경, 그리고 양 옆으로 보이는 바다는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현재도 침식이 계속되고 있어 언젠가는 이 풍경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꼭 이 풍경을 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샤리초 사쿠라노 타키 폭포

사쿠라노 타키 폭포는 봄에는 벚꽃이 피고 6월부터 8월까지 '사쿠라마스' 라고 불리는 송어의 일종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쿠라마스는 바다로 가서 크게 성장해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점프를 하는 6월에는 은색인데 산란이 다가오는 8월에는 점점 벚꽃(사쿠라)색으로 변합니다. 시원한 폭포를 보며 사쿠라마스를 응원해보면 어떨까요.



키요사토초 카미노코이케

카미노코이케는 일본어로 신의 아이 호수라는 뜻입니다. 신의 호수라고 불리던 마슈코의 복류수로 생긴 연못이라고 하여 신의 아이 호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수심은 5m정도로 굉장히 맑아서 바닥이 다 보입니다. 푸른 빛을 띠는 호수에는 곤돌매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신의 아이 연못이라는 이름대로 굉장히 신비스러워 시간이 멈춘듯한 공간을 선사합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